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계시로서 인간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제43장 '계시로서 인간'(다음 장이 제44장인 데서 추정), 465–470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뒤에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비추는 '계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 형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자의 삶은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계시가 됩니다.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하나님, 그리스도, 사도, 성경 인물, 교회 지도자로 이어지는 '본받음'의 사슬을 따라갑니다. 그 정점은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은 성경 인물을 본보기로 삼지 말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도 서로에게 본이 되라고 권하며 장을 맺습니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여덟 절로 나눴습니다.)

📜 1.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 타락 뒤에도 남은 형상

프레임은 하나님이 자연이나 성경만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리신다고 말합니다.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정신, 인격은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비춥니다. 각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면을 비춘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프레임의 관점주의가 깔려 있는 대목입니다. 프레임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형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형상에 담긴 지식, 의, 거룩함을 공격하지만 형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죄도 비뚤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비춥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각주는 이것을 거울상에 비유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실체를 뒤집어 보여주는 상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1. 사람은 하나님을 비추는 계시의 통로
2. 몸·정신·인격, 개인·공동체 모두 해당
3. 형상은 타락 뒤에도 남아 있다
4. 죄는 형상을 훼손하나 없애지 못함
5. 죄조차 '뒤집힌 거울상'으로 하나님을 비춤

> **창세기 1:26-27**
>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출발점
>
>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5:1**
> 타락 뒤 아담 족보에서 형상을 다시 언급함 → 형상이 남아 있음
>
>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 **창세기 9:6**
> 홍수 뒤에도 형상이 살인 금지의 근거가 됨
>
>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 **고린도전서 11: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야고보서 3:9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형상임 → 비신자에게도 형상이 있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에베소서 4:24 / 골로새서 3:10

형상의 내용(지식·의·거룩함)을 보여 줌. 죄가 바로 이것을 공격함

📜 2. 구원으로 새로워지는 형상 — 변화된 삶이 복음을 보여 준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가 만든 비틀림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갑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우리를 자신의 은혜와 형상과 계시를 드러내는 존재로 '다시 지으십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고 복음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에서 '사람이 계시'라는 말은 창조의 차원에서 구원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1. 믿음으로 죄의 비틀림이 시들기 시작
2. 구원은 형상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
3. 변화된 신자는 복음을 보여 주는 계시
4. 순종만이 아니라 순종의 본이 되어야

골로새서 3:10

새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워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에베소서 4:24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짐 → 형상의 회복

>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7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지역 신자들의 본이 됨 → 신자가 본이 되어야 함

>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 3. 본받아 배운다 — 하나님은 기준, 그리스도는 모범

프레임은 남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 배움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 장에서 프레임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곧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적용 공부는 없습니다. 본받음의 맨 위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삶은 따르는 모든 이의 모범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신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살피면서 그분을 닮아 갑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까지 본받아야 합니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자유주의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도덕적 영향력'으로 줄여 버린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도 성경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분으로 거듭 제시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균형을 잡습니다.

1. 말씀 이해 = 말씀 적용 (앞 장의 결론)
2. 적용은 실천하는 사람을 보며 배운다
3.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기준
4. 예수님의 말씀 내용과 말하는 방식까지 본받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 하나님이 삶의 기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베드로전서 1:15-16

같은 명령을 신약 신자에게 다시 줌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48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기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4. 가장 깊은 본받음 — 속죄의 사랑을 따라

프레임은 본받음의 가장 깊은 형태가 예수님의 속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여러 면에서 본받더라도 대신 죽으신 사랑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도 자기를 희생해 남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자의 사랑을 비교할 때 기준점은 다름 아닌 속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세 가지를 보면 압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음까지 포함한 고난의 깊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복의 깊이,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리이고 죄인이며, 잔치에 불려 온 가난한 자요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남의 죄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 우리도 남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 본받음의 정점은 속죄의 사랑
2. 우리 희생은 누구의 죄도 갚지 못함

4. 사랑이 측량 못 할 만큼 큰 세 가지 이유

5. 우리는 자격 없이 초대받은 자들

요한복음 3:16; 로마서 5:8; 로마서 8:39; 에베소서 2:4-5; 데살로니가후서 2:16; 요한계시록 1:5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에서 드러남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에베소서 2:4-5 [4]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복음 15:13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마가복음 10:45

섬기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인자 → 섬김의 본과 속죄가 한데 묶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1-11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 속죄가 신자 태도의 모델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베드로전서 2:18-25

고난받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으로 제시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

요한일서 3:16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함 → 이 절의 결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9-11

화목제물로 보이신 사랑 →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복음 14:21

잔치에 불려 온 가난한 자·장애인 → 은혜받을 자격 없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로마서 5:8

"아직 죄인 되었을 때" →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죽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5. 편지보다 얼굴 — 사도가 직접 와 있는 것의 무게

성경 인물 가운데 특히 사도들은 사람을 통한 계시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무겁게

두고 어떤 학자들은 '사도적 임재'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느 정도 비슷한 기다림으로 묘사합니다. 요한은 종이와 먹 대신 직접 만나 말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야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린도전서처럼 사도의 방문이 경고로 다가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프레임은 직접 만남에는 편지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사랑은 얼굴을 보고 전할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도 몸으로 만날 때 더 쉽게 행사됩니다. 물론 바울은 편지로도 음행한 사람을 징계하며 몸은 떠나 있어도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직접 만남의 또 하나의 핵심은 교회가 사도의 삶을, 곧 그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사도들은 편지보다 방문을 원했다
2. 사랑은 대면할 때 더 깊이 전해짐
3. 권위의 행사도 대면이 더 쉬움
4. 가장 중요한 건 '사는 모습'을 보게 됨
5. 편지로도 권위는 있다 (영으로 함께)

> **로마서 1:8-17; 로마서 15:22-29; 고린도후서 12:14; 갈라디아서 4:12-20; 디모데전서 3:14-15; 히브리서 13:23**
>
> 사도(또는 저자)가 직접 찾아가고 싶다는 소망
>
> **로마서 1:8-17** [8]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
>
> **로마서 15:22-29** [22]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5]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

고린도후서 12:14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4:12-20 [12]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전서 3:14-15 [14]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15]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히브리서 13: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고린도후서 7:5-16; 에베소서 6:21-22; 골로새서 4:7-9; 디도서 3:12-14

동역자(디도·두기고 등)의 방문을 칭찬하고 보냄

고린도후서 7:5-16 [5]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9]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

에베소서 6:21-22 [21]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골로새서 4:7-9 [7]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디도서 3:12-14 [12]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13]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4]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고린도전서 4:14-21; 고린도전서 5:1-5; 고린도후서 13:10

고린도전서 4:14-21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

고린도전서 5:1-5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3: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6-8

떠날 때를 앞둔 사도의 고백 → 사도적 임재 본문 목록에 포함됨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종이와 먹보다 대면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 대면의 가치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삼서 1:13-14

같은 말: 먹과 붓보다 직접 만나 말하기

13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고린도전서 5:3

몸은 떠나 있어도 영으로 함께 → 편지에도 사도적 권위가 있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 6. "나를 본받으라" — 바울의 삶이 바울의 복음을 보여 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생활 방식을 사역의 본으로 내놓습니다. 가르침과 행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안디옥·이고니온·루스드라에서 겪은 박해까지 디모데가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요구합니다. 프레임은 바울의 인품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이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준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완벽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도 그는 성숙한 신자였고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교리만이 아니라 그의 삶도 연구해야 합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의 한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바울은 자기 삶을 사역 모델로 제시
2. “그리스도를 본받듯 나를 본받으라”

4.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성숙했다

5. 교리와 함께 삶도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3:10-11

바울의 교훈·행실·고난을 디모데가 보았음 → 삶 전체가 본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1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 본받음의 사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16; 빌립보서 3:17; 빌립보서 4:9

바울이 반복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함

고린도전서 4: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빌립보서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6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됨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인품은 바울 복음의 계시이다.”

📜 7. 사도 이후에도 — 지도자의 첫 자격은 '본이 되는 삶'

사람을 통한 계시는 사도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주요 자격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삶으로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 자격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삶의 모습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음, 절제, 신중함, 손님 대접, 다투지 않음, 돈을 사랑하지 않음, 가정을 잘 다스림, 새신자가 아닐 것,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 같은 것들입니다. 가르치는 능력도 들어 있지만 목록 전체가 '보이는 삶'에 무게를 둡니다. 프레임은 집사와 여성 가르치는 이의 자격도 이와 비슷하다고 덧붙입니다.

1. 사람을 통한 계시는 지금도 계속된다
2. 지도자의 핵심 자격은 본보기의 삶
3. 감독 자격은 대부분 성품과 생활
4. 집사·여성 가르치는 이도 같은 원리

> **디모데전서 4:12**
> 젊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함
>
>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 **디도서 2:7**
>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베드로전서 5:3

장로는 군림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3:2-7

감독 자격 목록 → 대부분 보이는 삶의 자질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8-13

집사 자격도 비슷함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도서 2:3-5

나이 든 여성이 젊은 여성을 가르치는 일 → 같은 원리

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 8. 본받음은 성화의 길 — 성경 인물 설교 논쟁과 우리의 몫

프레임은 본받아 배우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정리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성경의 본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아브라함, 광야 세대, 믿음의 선진들, 엘리야 같은 인물을 자주 본보기로 듭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한 가지 주장에 반대합니다. 설교는 성경의 구속 이야기만 설명해야 하고 성경 인물을 본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성경 자신이 계시를 풀어 줄 때 그런 인물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빼 버리면 전해야 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은 우리 자신도 동료 신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권합니다. 구속받고 성숙한 사람의 삶은 깊은 형태의 계시입니다. 우리와 이웃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면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1. 본받음은 말씀을 내 것 삼는 성화 수단
2. 성경도 인물을 본보기로 자주 든다
3. '인물을 본으로 쓰지 말라'는 주장에 반대
4. 빼먹으면 말씀 전달이 불완전해짐
5. 우리도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4:16-25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본

[16]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고린도전서 10:1-12

광야 세대의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경계)로 기록됨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

히브리서 6:11-12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이들을 본받으라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1:1-12

믿음의 선진들을 줄지어 본보기로 제시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히브리서 13:7

말씀을 전한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야고보서 5:17-18

우리와 같은 성정의 엘리야를 기도의 본으로 듦

[17]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속되고 성숙한 인간의 삶은 심오한 계시의 양식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이 장에서는 그 통로 중 하나로 '사람'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형상

관점주의
프레임의 방법론. 같은 진리를 여러 각도(기준·상황·내면)에서 보면 서로를 보완한다는 생각. 각주에서 '사람마다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모든 면을 비춘다'는 설명에 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라틴어 imitatio Christi)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따라 그분을 닮아 가는 일.

속죄(대속)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일.

화목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도덕적 영향설
십자가를 '사람을 감동시켜 바뀌게 하는 본보기' 정도로만 보는 견해. 프레임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사도적 임재(apostolic parousia)
사도가 교회에 직접 와서 함께 있는 것. 신약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학계 표현입니다('파루시아'는 원래 '도착·임재'라는 뜻으로 재림에도 쓰이는 말).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 실제로 거룩하게 변해 가는 과정.

적용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것. 프레임은 '이해 = 적용'이라고 봅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타락 뒤에도 하나님을 비추는 계시의 통로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깊이 그분을 드러낸다.
-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본받으며 배운다.
- 본받음의 사슬은 하나님 → 그리스도 → 사도 → 성경 인물·교회 지도자 → 우리 서로로 이어진다.
- 가장 깊은 본받음은 속죄의 사랑이다. 우리는 남의 죄를 갚을 수 없지만 그분처럼 목숨까지 내어 주는 사랑으로 부름받았다.
- 성경 인물을 본으로 삼는 설교는 정당하며, 우리도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1편 · 종이에서 마음으로 · 설교, 성례, 마음에 쓰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